

보도 시점 2026. 4. 9.(목) 08:00 배포 2026.4.8.(수)
(2026. 4. 9.(목) 석간)

‘한-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(MOU)’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첫 기획 회의(워킹그룹 킥오프 회의) 개최

- 제12차 한-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성과 발굴을 위한 기술 분야별 논의 착수

한국과 미국은 4월 9일(목) ‘한-미 기술 번영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’ 첫 기획회의(킥오프 회의)를 개최*하고, 양국 간 기술 번영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력에 본격 착수하였다.

*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), 외교부(장관 조현) -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, 국무부 참석

양국은 지난 10월 체결된 ‘한-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(Technology Prosperity Deal, MOU, '25.10.29.)’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 출범에 합의*한 바 있으며, 이번 회의는 첫 번째 공식 회의로서, 양측은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의 구성과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,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 활동을 통한 최종 목표와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인공지능 영향력 정상회의(임팩트 서밋) 계기, 한국 배경훈 부총리 - 미국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간 한-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(MOU)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(2.20.)

앞으로 각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*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, 올해 말 제12차 한-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**를 통해 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

* 인공지능, 디지털 기반 시설(인프라), 생명 공학(바이오)·제약, 양자, 기초·첨단 연구, 연구 안보, 우주 등

** (수석대표) 한국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-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

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“한-미 양국 관계에서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관계(파트너십)의 핵심 요소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” 라며, “이번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 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여, 한-미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과기정통부 미주 아시아 협력 담당관	책임자	과장	이경림 (044-202-43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차연 (044-202-4342)
	외교부 국제 과학기술 규범과	책임자	과장	손미정 (02-2100-6913)
		담당자	서기관	최지숙 (02-2100-6914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지정브리핑

